

2010.04.19. 미래정책연구실

□ **Wallstreet Journal(2010.04.01) 주요 내용**

- USDA는 농가전망에서 미국 전체 옥수수과 콩 식부면적이 충분하여 2년 연속 평년 수준의 작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함. 월스트리트저널은 낙관적인 농가전망으로 인해 곡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3월 초 86,000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옥수수의 올해 식부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8천 9백만 에이커로, 130억 부셀 이상 생산될 것으로 전망함.
 - 콩 역시 전년 대비 0.8% 증가한 7천 8백만 에이커로, 34억 부셀 이상 생산될 것으로 전망함.
- 농가전망이 발표된 후 상품시장에서 곡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콩의 선물가격은 33센트(3.4%) 하락한 부셀 당 9.41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옥수수도 부셀 당 3.45달러로 9.5센트(2.7%) 하락함.
- 지난해부터 비료와 농약 등 투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곡물류의 생산비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에서 콩과 옥수수 생산을 늘린 것으로 판단됨. 콩과 옥수수는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농가에서는 콩과 옥수수가 수확이 많고 생산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콩과 옥수수의 생산면적 확대는 밀 생산 감소 때문이라고 보도함. 밀은 유전자 조작 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어, 식부면적이 전년 대비 9% 하락한 5천 4백만 에이커에 그침.
- USDA는 기후 및 시장 상황에 따른 영농계획의 변동에 대해 오는 6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